

일본, 「개방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 정보화 시대의 글로벌 지식재산 비즈니스

천 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경우 그 건국의 기초가 지식재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거국적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많은 지식재산이 축적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이 쌓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권리에 기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식재산은 사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본의 특허가 전 세계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식재산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용자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지식재산의 선진적인 시장은 단연 미국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는 세계 공통의 비즈니스 언어이다. 그리고 지금 경매 등의 형태로 특허를 매매하는 시장이 완성되는 단계에 있어 이는 열린 기회를 의미한다. 하드웨어 수출과 같이 일본은 미국을 지식재산 활용의 돌파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다음 시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게도 절호의 찬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지식재산을 미국에 빼앗길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지만 세계화 시대에서는 타국과의 협력 없이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찍이 하드웨어로 일본이 세계 선진국이 되었을 때에도, 초반부터 이와 같은 논의가 있어왔고, 어찌되었든 그 요점은 끊임없는 고안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 www.asahi.com

일본-싱가포르 특허심사하이웨이, 7월부터 시행 시작

일 본 특허청은 지난 6월 1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일본-싱가포르 특허청장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이 7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미 세계 특허 출원의 약 64%를 차지하는 주요 8국(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PPH를 실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PPH를 체결한 국가이다. 각 국가의 기업들이 보다 신속·적절하게 발명을 권리화 할 수 있도록 하는 PPH 제도가 이번 체결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PPH 시행 프로그램이 실시됨에 따라, 일본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도 신속하게 등록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한편 싱가포르에서 특허가 등록된 발명에 대해 출원인은 일본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조기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싱가포르는 현재 ASEAN 국가들과 심사 결과를 공유하는 제도(ASEAN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주요국인 싱가포르와 PPH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은 그 심사 내용이 ASEAN 국가에서 공유되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조기에 안정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일본은 2006년에 미국과 세계 최초로 PPH를 시작하였고, 이미 세계 주요국의 특허청과 PPH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이어 향후에는 유럽 특허청(EPO), 헝가리, 캐나다 등과도 PPH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www.jpo.go.jp

미국무역대표부(USTR),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 (ACTA) 추진 계획 발표

미 국무역대표부(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미 행정부가 국제적인 위조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의 Ron Kirk는 "ACTA 협상은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확고히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위조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미국경제에 비평적인 이노베이션과 창조성을 위한 세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게 해 줄 것이다."라고 하며, "우리가 이러한 협상들을 진행해나감과 동시에 우리는 대중이 양질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제공해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언급했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ACTA를 포함한 현재 추진 중이거나 미결정된 무역협정의 전체적인 리뷰를 진행해 왔다.

Kirk대사는 ACTA가 미국의 무역 과제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미국은 이미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갈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투명한 목표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대중들이 이번 협상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6일 발표된 협상의 각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요약문과 더불어 미국무역대표부는 웹사이트에 ACTA 페이지를 구축하였고, 또한 책임자들을 위한 "open-door"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 대표들과 시청("town hall")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CTA 협상 참가국들은 7월에 모로코에서 2010년 동의를 안목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특히 위조와 침해의 맥락에서 국제적인 협력증진과 효율적인 강제성에 기여하는 시행실습 체제의 명확화, 적절한 지식재산권 강화수단의 보장을 통해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맞서 싸운다는 참가국들의 목표를 강조했다.

출처 : www.ustr.gov

일본 개정 저작권법 성립,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지 난 6월 12일에 개최된 참의원 본회의에서 인터넷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개정 저작권법이 전회 일치로 가결·성립되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및 촉진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1)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음의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복제
 - 과거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으로 2차적 이용을 할 때 권리자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의 복제
 - 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 전자화
 - 기타, 인터넷 판매를 위한 미술품 사진 게재, 정보 해석 연구나 송신 효율화를 위한 복제 등
- (2) 불법 저작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함
 - 인터넷 판매 등에서 해적판임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은 권리침해임 (형벌 있음)
 -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인터넷 전송으로 음악·영상을 복제하는 것은 사적인 목적이라도 권리 침해임 (형벌 없음)
- (3) 장애자의 정보 이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 공공도서관 등에서 시각 장애자를 위한 녹음도서 제작 시설을 확대함
 - 청각 장애자를 위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이나 수화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발달장애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의 복제도 가능하도록 함

출처 : www.braina.com

일본 특허청, 디자인 공지자료(신제품 사진 등)의 공개 허락에 대한 협력 요청

일 본 특허청은 지난 6월 15일「디자인 공지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일반 공개를 위해 저작권물의 공개 허락을 취
인 득하는 사업의 2009년 일정을 발표했다. 「디자인 공지자료 데이터베이스」는 디자인 심사의 신규성 판단을 위
해 잡지, 카탈로그, 인터넷 등에서 신제품의 사진·도면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정리·전자화한 것이다.

일본 특허청은 국내의 잡지,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신제품의 디자인(사진·도면 등) 정보
를 수집·정리·전자화 하여, 특허청 내에 디자인 공지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 디자인 공지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인의 공개요청이 있지만, 각각의 자료에는 저작권이 있어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에 특허청 디자인과가 2008년에 수집, 축적한 디자인 공지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 내의 저
작권자에게 공개 허락을 받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출처 : www.jpo.go.jp

중국 표준원, 「2008년 국제 표준화 발전 연구보고」 발간

중 국 표준원의 주도로 표준화 이론과 전략계획을 개편한 「2008년 국제표준화 발전연구보고」를 정식으로 발간
중 했다.

「2008년 국제표준화 발전연구보고」는 2007년도 국제표준화 발전상황 연구를 통한 국제표준화 발전 현황을 전체
적으로 반영했고 국제표준화 발전 경향을 분석하여 중국 국제표준화 발전의 지침으로 삼았다.

보고의 내용은 다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국제표준화 발전
 -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춘 3대 표준화 기구 ISO, IEC, TU의 전략, 정책, 표준, 기술조직 및 발전 진행분석
- 국가표준화 발전
 - 국제표준화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을 대상으로 표준화발전사, 전략, 관리시스템 및 운영
방식, 국가표준영역 및 실행중인 조치를 분석, 종합
- 전문연구 토론편
 - 표준 제정중인 특허문제, 기술법규 중 표준문제를 인용,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 및 유럽연합이 표준화 시키고 있는 새로운 문제점
들을 선별하여 전문가들이 연구 토론한 성과물
- 부록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국제표준화 발전연구보고」는 중국에서 국제표준화발전의 연례보고에 관한 첫 번째 보고
물이며, 이번 발간물은 여러 독자들에게 권위 있고 상세하면서도 확실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국제표준화
사업의 발전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www.sipo.gov.cn

유럽연합(EU),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층 더 강도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 요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협상들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좀 더 강도 높은 협약을 맺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하였는데, 이는 최근 인도의 값싼 의약품과 식량난 우려에 대비한 농업 공급량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의 표시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등 온라인상으로 외부에도 알려져 있는 양측 협상의 초안은 자유무역협정이 TRIPs(TRIPs와 보호의 표준안이 결합된 형태)로 합의된 양국 간의 권리와 강제성을 구체화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법에서 전체 국가들로부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항의 결과로써, EU의 TRIPs 표준 동의안은 아무 조건 없이 당연하게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도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Carlos M. Correa는 지난 6월 9일 Oxfam이 공개한 FTA초안 분석에서 “이러한 접근법은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한층 더 높은 기준은 농업생산품 및 의약품과 같은 필수적인 상품들의 접근에 대해 빈곤층의 배타적 태도를 더욱 촉발시키기만 할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익명의 한 통상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 대해 선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모든 협상들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유럽연합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다. 우리는 아직 협상단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준비가 완료되면 협상을 진행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필수 의약품을 위한 국경없는 의사회의 Leena Menghaney는 “이미 국제 무역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상으로 의약품 관련 제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급격하게 강화하려는 유럽연합의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러한 유럽연합의 요구에 대항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인도의 생산성과 수출 및 저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성을 서서히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의약품의 시장 승인을 위해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추가 5년의 특허권 부여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그 독점권을 연장해줄 것을 인도 측에 요구하고 있다. 에버그리닝(evergreening)으로 알려진 이 절차는 저가 제네릭 버전 의약품의 등장을 미루는 등의 식으로, 특허권자들이 유명 의약품의 특허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유럽연합은 산출치 109억 유로에 이르는 규모로 인도의 가장 거대한 외국 직접 투자자본 중 하나이며, 2007년 인도의 전체 외국 직접 투자의 65%를 차지한다. 또한 인도는 2007년도 유럽 연합의 아홉 번째 주요 무역 거래 국가이다.

출처 : europa.eu

페이턴트뷰로, 특허 정보를 재구축·제공하는 웹서비스 「astamuse」 시험 공개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페이턴트뷰로는 연구자·기술자,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특허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가공 및 재구축하여, 열람·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웹서비스인 「astamuse」를 시험적으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특허 문헌에는 기술 논문의 10배에 달하는 기술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특허전자도서관(IPDL)」에서 무상으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사의 특허 정보 서비스에 의한 자세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지 이러한 특허 문헌은 기술 분야가 광범위하면서 법적인 기술이 많아 난해하고 또 접근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지식재산 실무자 이외에는 내용 이해, 검색 방법 등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동사는 특허 문헌에 기재된 기술 정보를 추출하고 대상 이용자에 맞추어 알기 쉽게 정리·재구축함으로써, 기술자·연구자, 기업경영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한 기술 정보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문헌은 2005년 10월 ~ 2009년 2월에 등록된 일본 특허로 IPC 분류와 등록연월일에 밖에 검색할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로 키워드 검색도 하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공개된 기능으로는 기술 용어 해설 기능, 도면의 썸네일(thumbnail) 표시, 트리 구조에 따른 IPC 분류 검색 기능, 「발명 상세(과제와 해결)」, 「발명요약·청구범위」, 「발명 실시 예」, 「참고 문헌」, 「경과 정보」, 「전문 표시」의 목적별 탭 표시 기능, 관련 특허 링크 등이 있고, 콘텐츠, 기능 모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astamuse.com



프랑스, 상습적인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차단은 「위헌」 판결

프랑스의 위헌 심사기관인 헌법 평의회는 지난 6월 10일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이용자가 3회 경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접속 강제차단 등의 방식으로 음악이나 영화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인터넷이 민주정치에 대한 참여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필수적인 것이기에, 「인터넷에 대한 접속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해당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신(新)저작권법은 최근 5년간 CD나 DVD 판매가 감소하여 고용불안까지 초래하였다는 음악·영화 관련 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사르코지 정권이 「인터넷 공간이 무법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제정을 주도하였고 지난 5월에 성립되었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집행기관을 설립하여 불법다운로드 상습자를 추적하고, 특정 위반자에게 보낸 경고가 3회에 이르렀을 때 인터넷 제공자에게 강제차단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야당 등은 「불법행위의 감시는 경찰국가에 이르는 길」,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였고, 위헌심사를 요구해왔다.

이번 헌법평의회 결정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직후에 채택되어 헌법의 전문이 된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정한 통신·표현의 자유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인터넷 접속이 포함된다」고 명기하여 차단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10일 아르바넬 문화통신부 장관은 법 개정엔 착수할 방침이라고 표명했지만, 현 정권은 인터넷상에서 횡행하는 해적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출처 : www.yomiuri.co.jp

선전시(深圳市),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책임 규정 마련

지난 6월 11일 선전(深圳) 시정부는 상무회의를 열어 「선전시 인터넷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 산업이 선전 GDP에 공헌한 비율이 꾸준히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2008년 말에 이르러 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1,521 곳에 이르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총 수입이 계속해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선전시 인터넷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황을 예로 들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률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 인터넷환경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인터넷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신속하면서도 건강한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 : www.sipo.gov.cn

Nintendo社, Wii 게임 콘솔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

Wii 비디오 게임 시스템의 제조사 Nintendo社는 미국 텍사스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비디오 시스템 컨트롤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은 Wii가 Guardian Media Technologies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Manuel Real 재판관은 Wii가 동영상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떠한 컨트롤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기반을 둔 Guardian사는 2008년 무려 48개에 이르는 컴퓨터 회사와 유통회사, 전자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Amazon.com, Microsoft, Apple, RadioShack, Wal-Mart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intendo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Rick Flamm는 보도문에서 "Nintendo사는 특허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전하며, "닌텐도의 제품이 Guardian사의 특허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이번 소송이 쉽게 마무리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출처 : www.nintendo.com

ACCS, 전국 지자체에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배포 및 철저한 관리 요청

ACCS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는 지난 6월 10일,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문서와 소프트웨어의 관리 방법을 정리한 「소프트웨어 관리 재점검 세트」를 발송했다.

ACCS는 기업이나 학교 등 조직 내에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대책으로, 소프트웨어 관리 방법의 개발 및 보급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조직 내에서의 불법 복제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는 창구를 설치하여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700건의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나라시(奈良市)에서 직원이 청사 내의 컴퓨터에 약 600개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인스톨 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고, 5월에는 이시카와현(石川県)에서 약 550개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인스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ACCS는 아직도 이러한 대규모 불법 복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 이번 요청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번 ACCS에서 송부된 「소프트웨어 관리 재점검 세트」에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실태, 불법 복제가 조직에 주는 악영향,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가이드북인 「경영자를 위한 불법 복제 방지 가이드」가 포함되었다. 또한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관리 항목이나 방법에 대해 해설한 「지금 바로 시작하는 소프트웨어 관리」 매뉴얼 등도 동봉되어 있어, 이러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관리를 재점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출처 : www.rbbtoday.com

제공 R&D 특허센터 홈페이지
(www.ipr-guide.org)